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의 논술고사 해설지 (인문계열)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1. 출제 의도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폴 우드러프(Paul Woodruff)의 『최초의 민주주의: 오래된 이상과 도전』(돌베개, 2012)의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글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해결해야 했던 딜레마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풀어냈는지 설명한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소질과 재능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본성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평등한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최초의 민주정치체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특정 집단들의 편견으로 규정되는 자연의 본성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여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자연적 본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본성을 근거로 정치체제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고려하면서도 모두가 평등한 민주정치체제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나] 이 제시문은 버나드 맨더빌(Bernard Mandeville)의 『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문예출판사, 2010)의 한 대목이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입 시기에 우화(寓話)의 형식을 빌려 당시 사람들에게 악덕으로 여겨지던 사치나 허영심이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욕이나 자선, 이타심과 같은 종교적 덕목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맨더빌은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이야말로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며, 국가의 자선적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은 위 제시문에 인용된 “사람이 배고파야 먹게 되듯이 순진한 미덕 만으로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 맨더빌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애덤 스미스와 맬서스, 하이에크 등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다] 이 제시문은 1938년 1월 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내 지방의 긴급 동의 - 문자를 보급함이 초미의 급무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 필자는 함경남도 지역의 문자 보급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왔던 야학이나 서당, 강습소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이 적절한 방침이나 정책으로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라] 이 제시문은 *Women's Own*이라는 잡지에 ‘사회 같은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1987년 9월 23일자에 게재되었던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의 인터뷰 기사를 일부 옮겨 놓은 것이다. 대처 수상은 당시 인터뷰에서 개인과 정부의 책임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설명하였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은 과거 노동당 정부가 고수하였던 복지 정책과 국유화 정책을 버리고 경쟁과 시장 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녀는 영국 경제가 침체한 원인이 과도한 복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재정 악화와 근로 의식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후세에 이를 대처리즘이라고 명명하였는데 대처리즘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 기조로 이해되고 있다.

3. 문제 설명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얼핏 보기에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제시문들 사이에서 관점의 상동성(相同性)과 상이성(相異性)을 결정해 주는 공통적인 논제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 논술에서는 ‘효율(또는 성장)과 형평(또는 분배)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효율(또는 성장)과 형평(또는 분배)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판별하여야 한다.

1. [가]의 내용 요약

인간의 자연적인 조건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한정 짓는 기준이 없으면, 특정 집단 내에서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다른 집단과의 갈등의 무기로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란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른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나]와 [라]이다. [가]는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본성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다른 집단에 대해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이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언어 구사 능력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제시문은 주장한다. 본성을 개별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발전 능력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가] 제시문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본성을 보고 있다. 결국 이는 형평(또는 분배)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주어진 제시문들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관점을 피력한 것은 [나]와 [라]이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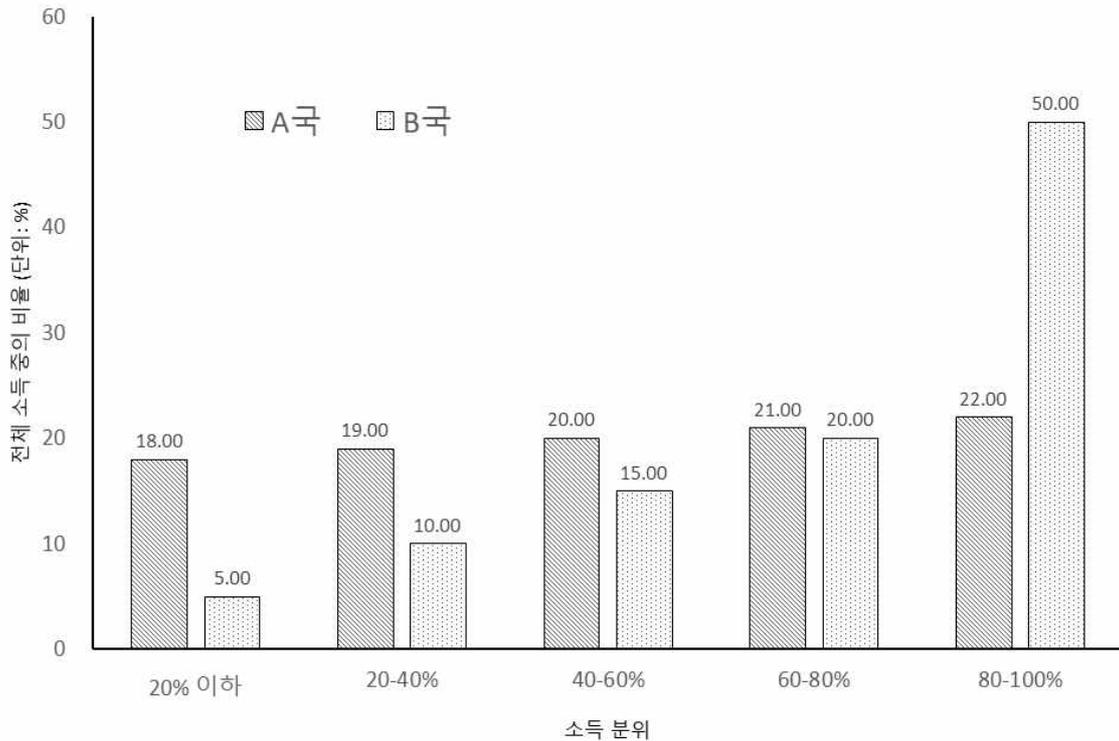
제시문 [나]는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다면 밥을 먹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정직이나 순진한 미덕으로 표현되는 윤리적인 가치나 자선적인 정책으로는 나라가 잘 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기, 사치, 오만 등 악덕으로 여겨지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성과를 가져오는 덕목이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야만 국가가 부강할 수 있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의로우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 제시문 [가]와는 반대되는 견해이다.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본 제시문은 관대한 복지 제도를 비판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다 보니 개인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핵심 사명으로 삼는 복지국가 체제에서 복지 지출의 재원이 국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하는 세금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대한 복지 제도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필요한 복지 지출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비대한 복지국가를 축소시키고 경쟁에 기초한 사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본 제시문은 형평성을 강조한 사회가 결국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지 비판함으로써 제시문 [가]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문제 2】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 분위별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은 각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한다고 할 때 각각 20% 이하, 20-40%, 40-60%, 60-80%, 80-100%의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세로축은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8%를 벌어들인 반면 B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를 획득하였다.



한편 다음의 표는 A국과 B국의 성인 인구, 자본재의 규모 및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두 나라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재의 규모는 기계의 대수를 나타내고 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과 같다. 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자본재의 품질, 그리고 물가 수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20-65세 인구 (단위: 명)	1,000	200
자본재의 규모 (단위: 대)	2,000	400
국민소득 (단위: 억 원)	1,000	1,000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하라.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제는 그림과 표가 전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개요

본 문제는 효율과 형평이 상충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과 표가 보여 주는 통계와 주어진 가정들을 고려하여 두 나라 경제구조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서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2. 해설

그림은 각 분위별 소득분배의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A국의 경우 각 소득 분위별 분배 비율이 20% 내외로 매우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B국은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만을 획득한 반면 가장 높은 소득을 얻은 집단은 전체 소득의 50%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균등한 분배 차원에서는 A국이 B국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표는 각국의 생산 효율을 비교하여 보여 준다. A국의 경우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B국에 비해 각각 5배 많지만 같은 수준의 총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A국의 성인 1인당 국민소득이 1억 원인 반면 B국은 5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도 A국은 9천만 원 (=1,000억 원×0.18÷200)인 반면 B국의 경우 1억 2,500만 원(=1,000억 원×0.05÷40)으로 B국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이를 토대로 B국의 생산 효율성이 A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가정 하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첫째, A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B국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원의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므로 분배의 형평이라는 목표는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력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자원을 과다하게 배분할 경우 효율적 생산이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한다. 구 소비에트 연방(소련)을 이와 같은 사례로 들 수 있다. 구소련이 보유한 노동과 자본은 그 양과 질에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관료가 주도하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유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균등한 소득 분배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시장기구의 작동에 의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더 많은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생산요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계획경제에 비해 더 많은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되어 분배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A국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일 수 있다. 숙련도가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것이다. 한편 숙련도가 낮은 저소득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총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B국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할수록, 숙련도가 더 높을수록 세후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서비스 공급과 숙련도를 증진시킬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B국의 생산요소는 집약적으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육체적 장애 등으로 노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숙련도가 극히 낮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답안 예시

그림은 양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매우 다름을 보여준다. A국과는 달리 B국의 소득 분배는 매우 불균등하다. 표는 양국의 생산 효율이 다름을 시사한다. A국은 B국에 비해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5배나 많지만 양국의 생산량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A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B국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균등한 소득분배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자원이 과다 배분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이 배분되어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A국은 높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생산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B국은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긴 여름 해를 좋아하네.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 전각엔 시원한 기운 일어나네.
일단 이런 곳으로 거쳐 옮기면 / 괴로움과 즐거움 영영 잊고 마니,
월컨대 이런 베풀을 고르게 하여 /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의 시는, 전반부에서는 고대광실(高臺廣室)에 사느라 통풍이 잘 되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에 여름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심신이 편한 나머지 즐겁고 힘든 일을 느낄 새가 없다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주위와 두루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형평(또는 분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작품이다.

<보기> 시의 주제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효율(또는 성장)에 대한 형평(또는 분배)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가]와 [다]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효율(또는 성장)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나]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보기> 시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나]와 [라]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가]와 [다]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보기> 시의 주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형평(또는 분배)이 효율(또는 성장)보다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글쓴이 자신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2. 제시문의 논거 활용

1)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

[가]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등하지 않게 여기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각의 사회나 민족, 국가 등은 자신들의 편견에 따른 기준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이를 다른 집단과의 갈등에서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성에 대한 고려는 개인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종으로서의 인간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본성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성적인(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정의되었다. 언어 사용 능력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은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갖추게 한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종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본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람이 각 집단의 문화적 번영에 똑같이 기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형평을 추구하는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 일을 하게 되며, 부와 사치를 추구하는 욕망과 이기심,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 사회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제시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는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로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했고 중국에는 대공황 등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다. 개인의 탐욕 추구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투기와 불법, 편법이 가득한 불공정한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러한 불평등 사회는 도리어 사람들을 체념시켜 근로 의욕을 꺾기도 했다. 그렇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일정하게 공공성을 회복해야만 보다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제시문은 <보기> 시의 주제를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자 체계를 보급하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 체계의 보급 없이 대중적인 정보의 전달은 불가능하며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발전시킬 수도 없다. 또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정부인이나 늙은 농부나 머슴이나 비복을 막론하고 글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언어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복지국가는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제시문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모두 일하기 싫어하고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IMF 경제 위기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해 실직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회가 어려움에 빠진 개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복지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한다면 복지 제도의 형평성 추구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2) 시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

[가] 언어 사용 능력으로서의 본성과 이를 통한 문화 발전의 가능성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제시문은 주장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차원일 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본성을 모두 평등한 정도로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언어 사용 능력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격차가 있기에,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능력 차이는 크다. 더 나아가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인간 공동체에는 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수준에서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집단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하도록 기여하는 것은 뛰어난 언어 사용 능력이나 학문, 예술, 기예 등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개인의 현실적인 능력이다. 그런 재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가능성은 사실 한 집단의 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가능성에 기대하면서 형평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능력 차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집단이 문화 발전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역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에 대한 탐욕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잘 다스려서 도덕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사회적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부를 추구하려는 욕망과 이기심이야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악덕으로 여겨 인위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가로막는다면 도리어 사회 전체의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여 기계적으로 형평을 추구하다가 경제의 동력을 잃고 자본주의 사회와의 경쟁에서 몰락한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이다.

[다] <보기> 시의 주지에 반대하여 효율(또는 성장)의 우선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두루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 당시의 문자 보급은 단순한 문맹 퇴치 운동이 아닌 통일된 문자 체계의 보급 즉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 및 표준어의 보급을 통한 근대 국민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된 문자 체계가 없었던 시기에 문자의 보급이 언어공동체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문자 보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표준어의 보급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구소련 지역의 고려말,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말 등이 한국어 의사소통의 한 변이형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쓰지 말아야 할 말, 쓰면 부끄러운 말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일된 문자 체계의 보급이 오히려 차별의 출발점이 되어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자 체계의 보급이 언어공동체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며 늘 형평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라] 복지 제도의 취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복지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복지 정책을 생각해 보자.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때 정부의 도움으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의도도 있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판 삼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가 더욱 강하다. 정부가 무한히 도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 복지 수혜에 익숙해지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당장은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보다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문제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나]와 [라]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나]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나]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나]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나]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나]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나]와 [라]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유의 사항>

- 100점 중 그림과 표가 의미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에 50점을, 그 원인을 효과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50점을 배정한다.

1) 그림과 표의 의미 기술: 50점

- 50점 - 31점: 그림을 통해 양국의 소득 분배가 다름을, 표를 통해 양국의 생산 효율이 다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한 경우
- 30점 - 11점: 그림과 표의 시사점 중 한 가지만 정확히 기술한 경우
- 10점 - 0점: 두 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2) 양국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추론: 50점

- 50점 - 36점: 모범 답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설명 중 하나가 논리적으로 제시된 경우
- 35점 - 21점: 추론을 함에 있어 일부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 20점 - 10점: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고, 도입된 가정과 배치되는 가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11점 - 0점: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